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09월 02일

HANA Global Weekly



하나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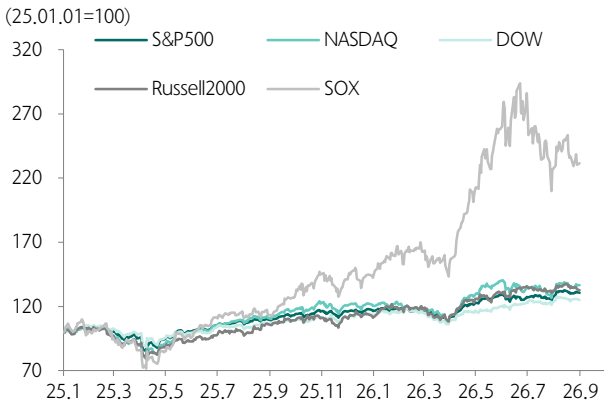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PCE 물가의 예상치 상회와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관망세를 보였으나,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 AI 투자 우려가 완화되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금채금리가 급등하였고, 엔비디아 호실적에 상승했던 기술주 위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 이어 미-이란 간 군사 충돌 재개로 유가 및 장기 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

종가 기준일: 2026.08.31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7,686.1	(0.3)	0.4	2.6	12.3
	NASDAQ	26,370.9	(0.1)	1.5	3.9	13.5
	DOW	53,185.9	(0.7)	(0.4)	1.3	10.7
	Russell2000	2,956.5	(0.5)	(1.3)	0.9	19.1
	SOX	11,535.1	0.6	1.0	2.0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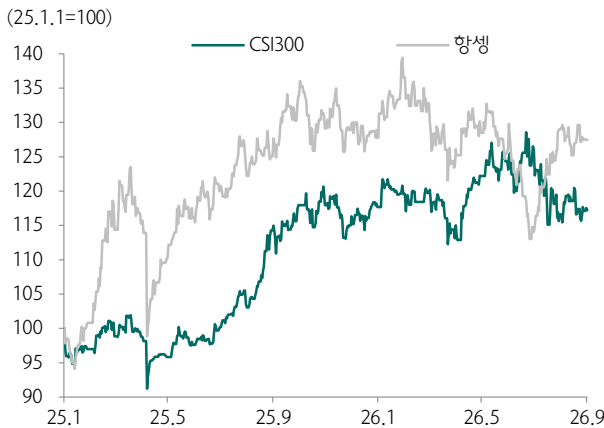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중국 본토 증시는 8월 한 달간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가 테크 중심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임
- 반면에 홍콩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으며, 특히 항셍테크지수의 낙폭이 중화권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컸으나 Minimax는 월간 51% 급등
- 대만 증시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8월 한 달간으로는 3,008.72pt 상승하며 7월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고 중화권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 기록

종가 기준일 : 2026.08.31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625.1	0.3	1.4	0.8	(0.1)
	항셍	25,567.0	(0.1)	0.2	(1.2)	(0.2)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OPEC+ 정례 회의	9/6	19:00	★★★	9월 FOMC 회의 2 주 전 공개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	9/10	21:15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25% 동결
BRICS 정상회의	9/12~13	00:00	★★	올해 슬로건은 '회복력, 혁신, 협력 및 지속가능성'
세계폐암학회(WCLC)	9/12~15	08:00	★★	국내외 주요 항암 바이오텍 초록(Abstract) 공개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KBWB (Invesco KBW Bank ETF)	CHAT (Roundhill Generative AI & Technology ETF)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 Index Fund)	XBI (SPDR S&P Biotech ETF)

투자 유망 종목

알파벳 (GOOGL.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AMD (AMD.US)	캐터필러 (CAT.US)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	유나이티드 렌탈스 (URI.US)	블룸 에너지 (BE.US)	레노버 (0992.HK)	자금광업 (2899.HK)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델 테크놀로지스	DELL	9월 1일 장후	FY26 2분기 매출 448.4억, EPS 4.85 달러
팔로알토 네트워크	PANW	9월 1일 장후	FY26 4분기 매출 33.5억, EPS 1.67 달러
브로드컴	AVGO	9월 2일 장후	FY26 3분기 매출 294.1억, EPS 3.24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클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AI 보안 수요, 내러티브에서 숫자로
미국 이슈 코멘트	엔비디아를 안 살 이유가 없다
Marvell Technology (MRVL.US)	10월 도파민이 필요하다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전력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1기와의 차이점
CXMT(688825.CH)	1H26 Re: 가이드نس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
양광전력(300274.CH)	2Q26 Re: 전 사업부 매출 감소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0.0	2.6	1.6	20.8	13.3	0.0	0.2	0.5	1.6	1.3	16.9	17.0	17.0	18.1	19.0	19.7	14.9	3.3	3.3	3.2	3.4	3.1	3.4	2.3	
에너지	1.6	4.0	9.0	36.0	33.8	-0.0	0.2	0.1	2.6	2.6	12.5	12.4	12.5	12.0	13.8	17.4	9.0	1.9	1.9	1.9	1.8	1.7	2.1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소재, 건강관리
소재	-1.7	10.2	2.9	28.3	16.3	0.0	0.0	-0.0	1.8	1.1	15.9	16.1	14.4	15.2	17.0	17.7	13.1	2.4	2.4	1.9	2.3	2.0	2.5	1.6	
산업재	-1.3	-0.2	0.3	16.9	12.4	0.0	0.2	0.4	0.8	0.8	21.2	21.2	21.9	22.4	21.7	24.6	15.8	4.0	4.0	4.1	4.1	3.6	4.2	2.5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자유소비재	-0.5	-0.3	-2.6	0.3	-3.0	-0.0	0.1	0.4	0.6	0.4	19.6	19.6	19.8	21.1	22.0	22.9	16.2	3.3	3.3	3.3	3.4	3.6	3.8	2.8	
필수소비재	-1.5	-1.3	1.6	3.3	4.8	0.0	0.1	0.1	0.3	0.2	19.2	19.5	19.7	19.0	19.6	21.2	17.1	4.3	4.4	4.4	4.2	4.1	4.6	3.5	
건강관리	-2.9	3.8	10.3	17.4	6.2	0.0	0.1	0.2	0.3	0.3	18.5	19.0	18.3	17.1	16.7	20.2	15.7	4.2	4.3	4.1	3.8	3.7	4.3	3.4	
금융	-0.3	1.1	10.8	16.0	10.1	0.0	0.1	0.3	1.1	0.8	13.3	13.3	13.4	12.5	13.3	13.7	9.8	1.8	1.8	1.8	1.7	1.7	1.8	1.2	
정보기술	2.3	5.9	-1.4	43.3	29.4	0.1	0.4	1.1	3.1	2.5	17.5	17.6	17.8	22.4	26.7	29.6	16.9	6.9	6.9	6.9	8.3	7.5	8.5	5.4	
커뮤니케이션	-1.2	-0.5	-7.3	5.7	-2.6	-0.0	-0.0	0.2	1.0	0.9	17.1	17.1	16.8	18.7	19.2	21.2	15.6	3.3	3.3	3.3	3.7	3.7	4.0	2.3	
유틸리티	-1.8	-3.3	-3.5	7.2	2.0	0.0	0.1	0.2	0.4	0.2	15.8	16.0	16.4	16.3	15.6	17.5	12.5	1.8	1.8	1.9	1.8	1.7	2.0	1.4	
미국	0.3	2.7	1.6	19.0	12.3	0.1	0.2	0.4	1.3	1.0	19.7	19.9	19.7	21.1	22.1	22.9	17.2	4.6	4.6	4.5	4.8	4.5	4.8	3.3	
에너지	0.7	5.4	11.4	39.4	38.8	-0.0	0.2	0.2	2.2	2.3	14.7	14.6	14.7	14.1	16.0	21.1	10.3	2.4	2.4	2.4	2.3	2.0	2.6	1.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건강관리, 소재
소재	-2.5	10.8	4.4	22.2	15.4	0.0	0.0	-0.1	1.7	1.1	17.5	17.9	15.6	16.2	20.0	21.4	15.2	2.8	2.9	2.5	2.7	2.7	3.3	2.0	
산업재	-2.2	-2.5	-0.1	14.3	12.3	0.0	0.1	0.2	0.6	0.5	24.8	25.0	25.6	25.8	24.9	28.0	17.7	6.3	6.4	6.5	6.5	6.2	6.9	4.2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자유소비재	-1.1	-0.2	-3.9	2.5	-0.9	-0.0	0.0	0.4	0.8	0.6	22.8	22.8	22.8	25.1	27.1	30.0	21.0	6.0	6.0	6.0	6.6	7.6	8.8	5.9	
필수소비재	-2.5	-1.0	1.2	5.8	8.0	0.0	0.1	0.1	0.3	0.2	21.6	22.0	22.1	21.5	21.7	24.0	17.5	6.2	6.3	6.3	6.1	6.0	6.6	4.7	
건강관리	-2.5	4.5	13.3	22.5	8.8	0.0	0.1	0.3	0.4	0.3	19.3	19.8	18.9	17.7	16.9	20.3	15.8	4.9	5.0	4.7	4.3	4.1	5.0	3.8	
금융	-0.8	0.8	11.0	9.8	6.4	0.0	0.1	0.3	1.0	0.7	15.4	15.5	15.4	14.4	16.4	17.0	11.7	2.3	2.3	2.3	2.1	2.3	2.3	1.5	
정보기술	3.7	6.3	-0.1	32.7	22.5	0.2	0.3	0.7	2.1	1.5	21.5	21.7	21.7	26.2	29.2	32.3	19.5	9.3	9.2	9.1	10.6	10.4	11.5	7.4	
커뮤니케이션	-1.0	-0.7	-8.7	11.5	-0.9	-0.0	-0.0	0.3	1.1	1.1	17.6	17.5	17.3	19.6	19.3	22.4	15.8	3.7	3.8	3.7	4.4	4.3	4.8	2.8	
유틸리티	-2.3	-5.2	-5.1	0.2	-1.5	0.0	0.1	0.2	0.5	0.4	17.0	17.3	18.0	17.7	18.4	20.0	14.1	1.9	2.0	2.0	2.0	2.1	2.3	1.5	
일본	2.1	3.6	4.3	36.5	22.0	0.0	0.2	0.5	1.5	1.2	16.6	16.5	16.6	17.6	16.2	19.0	12.3	1.9	1.9	1.8	1.9	1.5	2.0	1.1	
에너지	1.1	5.3	5.4	53.2	23.2	-0.1	0.2	0.5	5.1	3.4	9.0	9.0	8.9	8.7	11.2	13.9	6.2	0.9	0.9	0.9	0.9	0.7	1.1	0.5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금융, 유틸리티, 건강관리
소재	0.3	5.3	-8.7	28.3	17.8	0.0	0.0	0.3	0.5	0.6	16.6	16.6	15.9	19.2	14.1	19.3	10.4	1.4	1.4	1.3	1.6	1.0	1.6	0.8	
산업재	1.9	5.3	3.8	38.6	20.5	-0.0	0.1	0.4	1.0	0.9	18.8	18.5	18.4	19.1	16.7	22.2	11.6	2.1	2.1	2.1	2.1	1.7	2.3	1.2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자유소비재	1.4	2.5	6.0	18.5	9.5	-0.0	0.3	0.8	1.2	0.4	16.4	16.3	17.0	17.7	17.3	18.3	10.1	1.4	1.4	1.4	1.4	1.4	1.6	1.0	
필수소비재	0.3	2.4	10.7	14.6	6.9	0.0	0.1	0.2	0.6	0.3	21.2	21.4	21.2	19.7	21.3	22.9	18.2	2.1	2.2	2.2	1.9	1.9	2.2	1.6	
건강관리	-1.0	5.0	1.8	15.2	4.6	0.1	0.2	0.0	0.5	0.3	17.8	18.0	17.6	16.8	17.0	23.4	15.2	2.1	2.1	2.1	2.1	2.1	2.5	1.8	
금융	5.2	2.5	18.0	56.7	41.4	0.3	0.5	0.8	1.9	1.5	13.3	13.3	13.9	12.7	11.4	14.8	8.5	1.5	1.4	1.4	1.4	1.1	1.5	0.7	
정보기술	1.0	2.7	-2.0	83.1	46.3	0.0	0.3	1.3	3.3	3.1	17.5	17.4	17.8	23.5	22.2	28.5	16.2	3.9	3.9	3.8	4.5	2.6	5.2	1.8	
커뮤니케이션	3.1	5.9	-5.1	2.5	6.1	-0.1	-0.0	-0.3	0.8	1.1	19.9	19.5	18.8	21.1	22.9	28.3	16.3	2.4	2.4	2.2	2.5	2.8	3.4	1.5	
유틸리티	3.4	6.1	6.3	30.7	9.9	0.2	0.3	0.4	0.2	1.6	11.8	12.1	11.9	11.8	9.7	16.0	6.2	0.9	0.9	0.8	0.8	0.8	1.0	0.5	
유럽	-0.6	0.3	4.1	18.4	10.1	0.0	0.1	0.2	0.9	0.7	15.2	15.3	15.3	15.0	14.9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에너지	-1.2	-1.4	5.5	35.8	33.5	-0.0	-0.1	-0.1	3.9	3.8	9.3	9.4	9.4	9.0	10.8	13.1	7.6	1.4	1.4	1.4	1.4	1.4	1.7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유틸리티, 금융
소재	1.1	5.3	3.2	28.9	19.1	0.0	0.1	0.2	1.4	0.9	16.8	16.8	16.1	16.9	16.8	17.9	12.6	2.1	2.1	2.0	2.1	1.6	2.1	1.4	
산업재	-0.5	0.1	2.0	16.4	10.3	0.0	0.1	0.3	0.6	0.5	21.8	21.9	22.0	22.1	21.5	24.2	15.5	4.1	4.1	4.0	4.0	3.7	4.2	2.6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필수소비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0.6	-0.2	1.0	-3.1	-10.6	0.0	-0.0	-0.1	0.1	-0.3	15.5	15.2	15.4	14.9	16.0	17.2	10.9	1.6	1.6	1.6	1.6	1.6	1.9	1.4	
필수소비재	-1.6	-3.7	2.1	0.0	0.4	-0.0	-0.0	0.2	0.3	0.2	15.2	15.2	15.7	15.0	15.8	17.2	14.6	3.0	3.0	3.1	2.9	2.9	3.3	2.6	
건강관리	-2.3	-1.2	1.5	8.6	-0.7	0.0	0.0	0.1	0.2	0.2	15.6	16.1	15.8	15.1	14.9	18.8	13.1	3.3	3.4	3.3	3.2	2.9	3.8	2.6	
금융	0.1	0.8	12.7	28.7	15.1	0.0	0.1	0.4	1.3	0.9	11.8	11.8	11.8	10.8	10.8	12.0	7.7	1.6	1.6	1.6	1.5	1.4	1.7	0.9	
정보기술	-0.8	4.3	-1.5	53.4	33.1	0.0	0.2	0.5	1.1	1.1	27.5	27.4	27.0	32.8	25.3	34.4	19.0	6.0	6.0	5.8	6.5	4.6	6.9	3.5	
커뮤니케이션	-0.6	3.1	-1.3	-6.8	1.7	0.0	0.1	0.2	0.7	0.4	15.5	15.7	15.1	16.1	18.6	19.7	13.0	2.1	2.1	2.0	2.1	2.1	2.2	1.2	
유틸리티	0.2	-2.2	0.2	25.4	10.8	0.0	0.1	0.2	0.7	0.3	14.9	15.0	15.4	15.3	13.0	16.2	11.1	1.9	1.9	2.0	1.9	1.6	2.0	1.4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흥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흥국	0.9	3.2	-1.9	36.6	22.4	0.1	0.6	1.5	4.5	3.9	9.9	9.9	10.2	12.1	13.2	14.0	9.6	2.0	2.0	1.9	2.2	1.7	2.2	1.4	
에너지	1.5	2.8	1.1	18.6	9.2	-0.0	0.3	0.3	2.8	2.9	8.8	8.8	8.9	9.1	10.0	11.4	7.3	1.2	1.2	1.3	1.3	1.1	1.4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금융, 소재
소재	-0.2	13.2	3.7	36.4	9.7	0.0	0.1	0.0	3.0	2.0	11.9	11.8	10.5	11.3	13.5	14.7	10.0	1.9	1.9	1.0	1.9	1.5	2.2	1.0	
산업재	0.5	4.8	-6.2	26.0	14.7	0.0	1.1	1.9	4.0	3.9	10.9	10.7	11.6	14.4	14.9	17.7	10.7	2.0	2.0	2.0	2.4	1.8	2.6	0.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1.4	-3.2	-5.2	-9.7	-12.7	-0.0	0.2	0.4	-0.2	-0.0	12.8	12.9	13.5	14.4	14.4	16.0	10.9	1.6	1.6	1.6	1.6	2.0	2.2	1.3	
필수소비재	-1.4	-1.1	-0.7	-6.8	-4.5	-0.0	0.1	0.1	0.1	0.1	17.6	17.7	18.0	17.8	19.0	20.7	17.3	3.0	3.0	3.0	3.1	3.2	3.3	2.4	
건강관리	-1.1	8.6	13.9	4.4	10.0	0.0	0.1	0.2	0.4	0.3	27.8	27.7	26.1	25.0	29.9	30.3	22.7	3.7	3.7	3.4	3.3	3.8	3.9	2.6	
금융	1.1	1.7	8.5	15.6	8.1	0.1	0.3	0.5	1.3	0.8	9.3	9.3	9.4	9.0	9.1	9.9	7.1	1.2	1.2	1.2	1.1	1.1	1.2	0.9	
정보기술	2.0	5.2	-6.8	126.8	76.1	0.2	1.1	3.1	9.0	7.9	8.6	8.5	9.0	12.7	15.9	18.0	7.8	3.4	3.3	3.4	4.7	2.8	4.8	2.1	
커뮤니케이션	0.4	-4.2	0.1	-16.8	-18.1	-0.0	-0.2	-0.2	0.4	-0.0	13.8	13.7	13.9	13.6	17.6	19.1	12.8	2.1	2.1	2.2	2.2	2.8	3.0	1.9	
유틸리티	-0.3	-2.1	-4.7	5.6	1.4	0.0	-0.1	-0.0	-0.1	-0.7	12.2	12.3	12.2	12.7	11.4	13.6	9.8	1.3	1.3	1.3	1.4	1.1	1.4	1.0	
중국	0.9	-0.5	-0.1	-7.5	-8.4	0.0	0.1	0.3	0.6	0.3	10.6	10.6	10.8	11.1	12.6	13.6	8.0	1.2	1.2	1.2	1.3	1.5	1.6	0.9	
에너지	2.4	7.1	1.0	32.5	21.8	0.1	0.1	0.1	2.1	2.0	9.7	9.7	9.3	10.1	9.4	12.2	5.7	1.0	1.0	0.9	1.0	0.9	1.1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금융, 에너지, 산업재
소재	0.8	8.8	1.9	28.2	-3.5	0.1	0.2	0.3	3.9	2.8	10.3	10.0	9.4	10.1	13.2	16.8	8.5	1.9	1.8	1.7	1.8	1.7	2.6	0.9	
산업재	-0.4	-3.0	-9.0	4.5	-0.1	0.1	0.1	0.4	0.2	0.5	11.3	11.3	11.7	12.8	10.9	13.2	6.7	1.2	1.2	1.2	1.4	1.0	1.4	0.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1.2	-5.7	-4.1	-17.3	-19.3	-0.0	0.2	0.5	-0.5	-0.3	12.3	12.3	13.2	13.8	14.8	17.1	10.0	1.5	1.6	1.5	1.5	2.2	2.5	1.2	
필수소비재	-2.2	-5.6	-4.7	-22.4	-14.6	-0.1	-0.1	-0.0	-0.1	-0.2	14.4	14.3	14.9	15.0	18.1	20.5	12.8	2.3	2.3	2.4	2.5	3.1	3.5	2.1	
건강관리	-2.5	12.3	18.4	-0.1	15.5	0.0	0.2	0.3	0.6	0.6	26.3	26.4	24.1	23.0	31.8	32.1	18.9	3.3	3.3	2.9	2.8	3.6	3.6	1.8	
금융	3.2	1.8	8.0	11.3	7.5	0.2	0.4	0.8	2.3	1.4	5.8	5.8	6.0	5.8	6.2	6.5	3.6	0.6	0.6	0.6	0.6	0.6	0.7	0.4	
정보기술	3.2	8.4	-6.4	-5.9	7.6	0.0	0.3	0.6	0.5	0.4	22.7	22.3	22.7	28.1	27.9	30.4	12.8	3.1	3.0	2.9	3.4	3.7	4.0	1.3	
커뮤니케이션	1.9	-6.0	1.2	-24.8	-25.0	-0.0	-0.5	-0.5	0.2	-0.3	12.8	12.4	12.7	12.1	17.5	19.7	11.2	2.0	1.9	2.0	2.0	2.9	3.2	1.7	
유틸리티	2.6	-0.4	-7.9	-3.0	-3.2	-0.0	-0.1	-0.1	-0.6	-0.8	10.1	9.8	10.1	11.0	9.8	11.0	6.5	0.9	0.9	0.9	1.0	1.0	1.1	0.7	
인도	-0.4	-0.7	2.5	2.8	-4.0	0.0	0.0	0.3	0.6	0.5	19.8	20.0	20.1	20.1	21.9	24.5	19.0	2.9	2.9	2.9	2.9	3.3	4.0	2.8	
에너지	-2.2	-2.1	-3.7	-2.9	-15.7	0.0	0.0	-0.1	-0.2	-0.5	13.9	14.3	14.3	14.3	14.0	24.9	12.6	1.4	1.5	1.5	1.5	1.6	2.9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소재, 자유소비재
소재	-0.6	0.8	-2.3	12.8	4.8	0.0	0.1	1.5	1.8	2.0	16.4	16.4	16.5	22.1	20.7	25.0	16.2	2.6	2.6	2.6	2.8	2.8	3.1	2.3	
산업재	-0.8	1.9	-0.2	18.7	9.9	-0.0	-0.0	0.4	0.5	0.4	31.6	31.7	30.6	35.9	31.8	39.6	27.2	6.7	6.7	6.6	6.8	6.6	8.7	4.9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산업재, 금융
자유소비재	-1.2	0.5	11.3	7.4	2.0	0.0	0.0	0.1	0.1	0.1	32.2	32.7	32.6	29.1	31.5	35.8	24.9	5.4	5.4	5.4	4.8	5.8	7.1	4.1	
필수소비재	-2.8	-5.7	-6.5	-14.7	-13.0	0.0	-0.1	-0.1	0.1	0.0	37.9	39.0	39.4	38.7	46.3	56.6	36.7	8.2	8.5	8.8	8.9	10.5	12.1	8.2	
건강관리	2.2	0.3	8.8	14.5	13.9	0.0	0.0	0.1	-0.0	-0.1	34.5	34.2	35.0	32.3	30.1	35.3	22.1	4.8	4.7	4.9	4.5	4.6	5.5	3.9	
금융	0.1	-0.2	5.7	2.3	-5.7	-0.0	0.1	0.2	0.7	0.5	15.3	15.4	15.5	14.8	17.0	22.1	14.5	2.1	2.1	2.1	2.0	2.5	3.3	2.0	
정보기술	0.9	0.5	3.0	-16.2	-22.3	-0.0	0.0	-0.1	0.6	0.4	16.7	16.5	16.6	16.4	22.4	31.6	14.1	4.9	4.9	4.9	4.8	6.3	9.6	4.0	
커뮤니케이션	-5.8	-5.6	-0.4	1.3	-10.4	0.0	0.0	0.2	1.1	0.8	29.4	30.3	30.2	29.9	41.2	82.9	28.7	5.9	6.0	6.0	6.0	8.3	19.5	4.6	
유틸리티	-3.2	-6.5	-12.4	3.0	1.9	0.0	-0.0	0.0	0.1	0.2	15.2	15.6	16.0	16.9	15.0	22.0	12.7	1.9	2.0	2.0	2.2	2.0	3.0	1.7	
브라질	2.1	-2.2	0.5	23.2	12.2	-0.0	-0.2	-0.2	2.8	2.7	8.3	8.3	8.4	8.2	8.8	10.9	6.8	1.6	1.6	1.6	1.6	1.4	1.8	1.1	
에너지	7.7	1.1	4.0	56.6	58.7	-0.2493	-0.3	-0.7	8.3	9.3	4.8	4.6	4.9	4.7	5.4	7.6	4.0	1.0	1.0	1.1	1.1	0.8	4.6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소재	-1.4	1.1	-5.3	37.9	12.9	-0.0970	-0.4	-0.7	0.7	0.7	8.3	8.3	7.9	8.2	6.4	9.1	5.0	1.4	1.5	1.4	1.5	0.9	1.7	0.8	
산업재	-0.9	2.2	8.2	25.3	5.5	-0.0415	0.2	0.2	1.1	1.0	16.5	16.6	16.7	15.8	16.2	23.1	15.0	2.2	2.3	2.1	1.8	1.8	3.3	1.4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자유소비재, 소재
자유소비재	1.4	-2.7	19.8	64.2	55.3	-0.2223	0.1	1.5	4.6	4.3	9.4	9.4	10.2	9.6	10.8	14.2	6.6	1.7	1.8	1.8	1.6	1.2	1.9	0.8	
필수소비재	-2.3	-4.1	-3.2	9.2	2.2	-0.0908	-0.3	-0.5	-1.1	0.1	14.8	15.0	14.8	14.3	11.7	18.5	10.7	2.5	2.5	2.5	2.5	2.3	2.8	1.7	
건강관리	-3.1	-0.4	1.0	-6.3	-8.4	-0.0198	-0.1	0.1	0.9	0.4	14.2	14.6	13.9	14.2	17.2	21.4	10.8	3.4	3.5	3.4	3.4	2.9	4.5	0.7	
금융	-0.3	-4.3	1.4	9.9	2.2	0.0024	-0.2	-0.1	1.9	1.3	8.7	8.8	9.1	8.6	9.6	11.2	6.6	1.8	1.9	2.0	1.8	1.9	2.3	1.1	
정보기술	0.0	0.0	0.0	0.0	0.0	0.0000	0.0	0.0	0.0	0.0	17.9	17.9	18.0	16.4	24.4	26.6	15.0	3.4	3.4	3.5	3.2	4.5	5.0	2.3	
커뮤니케이션	-1.2	-8.6	-15.2	-8.6	-3.9	0.0315	-0.3	-0.4	1.9	1.5	10.0	10.3	10.7	11.5	13.8	15.7	9.7	1.6	1.7	1.7	1.8	1.9	2.5	1.0	
유틸리티	-0.3	-4.9	-4.3	28.1	8.2	0.0502	-0.2	-0.1	2.1	1.0	11.9	12.1	12.4	12.2	12.4	14.5	8.6	1.5	1.5	1.6	1.5	1.3	1.8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0.2	2.5	2.1	18.9	12.1	0.1	0.2	0.4	1.2	1.0	18.6	18.7	18.6	19.5	20.0	20.7	15.6	3.6	3.6	3.6	3.7	3.4	3.7	2.5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성장
대형주	-0.0	2.6	2.2	19.9	12.3	0.1	0.2	0.4	1.3	1.0	18.8	19.0	18.8	19.9	20.5	21.4	15.8	4.0	4.0	3.9	4.0	3.7	4.1	2.7	
중형주	-1.1	1.8	1.9	13.4	11.2	0.0	0.2	0.3	0.8	0.6	17.2	17.3	17.2	17.5	17.5	18.1	13.9	2.4	2.4	2.4	2.4	2.2	2.4	1.7	
소형주	-0.9	2.8	1.8	21.1	16.0	0.0	0.1	0.3	1.4	1.0	16.5	16.6	16.3	16.9	17.5	18.0	13.2	1.3	1.3	1.7	1.7	1.6	1.8	1.1	
성장 가치	-0.0	2.6	-1.1	16.4	8.5	0.1	0.2	0.4	1.1	0.9	23.6	23.9	23.9	26.5	27.3	28.8	21.9	6.4	6.4	6.4	7.1	6.8	7.2	4.8	
미국	0.3	2.7	1.6	19.0	12.3	0.1	0.2	0.4	1.3	1.0	19.7	19.9	19.7	21.1	22.1	22.9	17.2	4.6	4.6	4.5	4.8	4.5	4.8	3.3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성장
대형주	0.2	2.9	1.7	20.0	12.5	0.1	0.1	0.4	1.4	1.1	19.9	20.1	19.9	21.5	22.6	23.6	17.6	5.0	5.0	4.9	5.2	4.9	5.2	3.6	
중형주	-1.3	1.2	1.0	11.9	10.8	0.0	0.1	0.3	0.8	0.7	18.3	18.5	18.4	19.0	19.2	20.1	14.9	2.9	2.9	2.9	2.9	2.9	3.1	2.2	
소형주	-1.4	2.4	2.0	23.9	18.3	0.0	0.1	0.3	1.6	1.1	17.3	17.6	17.1	18.0	19.2	21.1	14.8	1.3	1.3	2.1	2.1	1.9	2.2	1.3	
성장 가치	0.3	2.6	-1.9	17.2	8.3	0.1	0.2	0.5	1.1	0.9	24.9	25.4	25.4	28.9	29.7	31.5	23.0	8.7	8.7	8.7	10.1	9.5	10.4	6.3	
일본	2.1	3.6	4.3	36.5	22.0	0.0	0.2	0.5	1.5	1.2	16.6	16.5	16.6	17.6	16.2	19.0	12.3	1.9	1.9	1.8	1.9	1.5	2.0	1.1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가치
대형주	2.4	3.5	4.3	39.3	23.3	0.1	0.2	0.6	1.5	1.3	16.9	16.9	17.2	18.3	16.4	19.4	12.3	2.1	2.1	2.0	2.1	1.7	2.2	1.2	
중형주	0.6	4.2	4.3	29.1	18.6	0.0	0.2	0.5	1.6	1.1	15.4	15.4	15.2	15.9	15.9	18.7	11.4	1.4	1.4	1.4	1.5	1.3	1.7	1.0	
소형주	0.7	3.3	3.7	21.7	19.6	-0.0	0.3	0.3	1.0	1.0	15.4	15.2	15.5	15.4	14.8	17.3	11.6	1.4	1.4	1.4	1.4	1.2	1.4	0.9	
성장 가치	1.2	4.6	2.1	32.8	20.3	0.0	0.2	0.6	1.6	1.6	20.0	19.9	19.9	22.5	21.7	25.7	16.4	3.2	3.1	3.0	3.3	2.7	3.5	1.9	
유럽	-0.6	0.3	4.1	18.4	10.1	0.0	0.1	0.2	0.9	0.7	15.2	15.3	15.3	15.0	14.9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성장
대형주	-1.0	-0.0	4.1	18.6	9.8	0.0	0.1	0.2	1.0	0.8	15.3	15.4	15.3	15.0	15.0	16.6	11.6	2.4	2.4	2.4	2.3	2.1	2.4	1.7	
중형주	-0.5	1.7	4.5	17.5	11.6	0.0	0.1	0.2	0.7	0.4	15.0	15.1	14.9	14.7	14.3	15.2	12.1	2.0	2.1	2.0	1.9	1.7	2.1	1.4	
소형주	0.9	3.9	2.0	12.7	8.5	0.0	0.2	0.2	0.6	0.3	14.5	14.5	14.3	14.4	14.1	14.9	10.6	1.6	1.6	1.6	1.5	1.4	1.6	0.4	
성장 가치	-0.6	1.1	1.8	13.7	7.6	0.0	0.1	0.3	0.8	0.7	20.3	20.4	20.1	20.6	21.2	25.2	18.9	3.7	3.7	3.7	3.7	3.8	4.4	3.4	
	-0.6	-0.6	6.5	23.1	12.6	0.0	0.1	0.2	1.1	0.9	12.3	12.3	12.4	11.7	11.5	13.0	8.6	1.7	1.7	1.7	1.6	1.4	1.7	1.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가치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9,885.08	10,774.25	12,644.97	11,879.38	0.12	0.14	8,090,712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7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주식형 펀드 유입세 전환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30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10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3,824.06)	9,450.43	8,413.29	17,564.57	(0.02)	0.05	17,418,545	
		W.Europe	(149.89)	(639.61)	1,247.10	913.04	(0.01)	(0.03)	2,190,799	
		Asia Pacific	2,885.88	1,448.79	2,105.73	1,238.90	0.21	0.11	1,380,543	
		선진국 합	8,797.01	21,033.85	24,411.09	31,595.88	0.03	0.07	29,080,598	
	신흥국	GEM	2,266.89	1,365.15	1,945.64	2,046.25	0.16	0.10	1,428,455	
		Asia ex-JP	(2,042.53)	6,251.95	(1,333.22)	6,894.08	(0.14)	0.43	1,506,220	
		EMEA	49.74	105.28	16.47	38.81	0.10	0.21	52,558	
		LatAm	171.26	(187.31)	149.26	(183.40)	0.30	(0.32)	60,376	
		신흥국 합	445.35	7,535.07	778.15	8,795.74	0.01	0.26	3,047,609	
채권	선진국	Global	1,472.70	2,019.19	838.33	911.20	0.11	0.15	1,349,066	
		NorthAm	12,225.33	14,703.10	12,142.32	12,405.13	0.21	0.26	5,733,434	
		W.Europe	858.65	2,674.71	378.80	1,130.59	0.04	0.13	2,072,064	
		Asia Pacific	161.62	236.74	89.83	146.25	0.21	0.32	77,113	
		선진국 합	14,718.30	19,633.73	13,449.28	14,593.17	0.16	0.22	9,231,677	
	신흥국	GEM	967.14	595.40	472.43	188.08	0.24	0.15	401,054	
		Asia ex-JP	1,478.10	731.95	1,554.70	795.33	0.54	0.28	274,618	
		EMEA	490.29	12.60	91.65	(16.30)	1.03	0.03	48,754	
		LatAm	65.47	57.22	108.93	43.37	0.37	0.33	17,791	
		신흥국 합	3,001.00	1,397.17	2,227.70	1,010.48	0.41	0.19	742,218	

자료: EPFR, 하나증권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수급: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 지속

-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150.6억달러의 매수세 유입이 진행되었고,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자금 유출 영향으로 -78.4억달러가 순유출
-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가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면서 총 +143.9억달러가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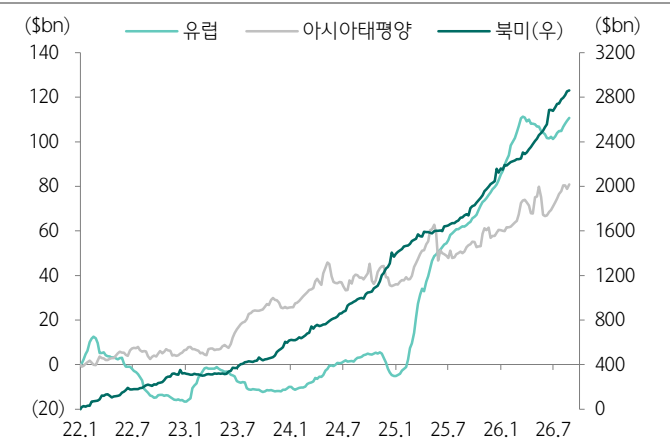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MM)				총자산 (\$MM)	유입강도 (%)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12,645	11,130	10,505	11,804	3,190,731	0.40
		북미	8,413	35,278	22,580	15,588	11,850,361	0.07
		서유럽	1,247	1,309	1,358	1,872	665,753	0.19
		아시아 태평양	2,106	(1,706)	58	2,624	1,035,995	0.21
	선진시장 Total		24,411	46,012	34,500	31,888	16,742,839	0.15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1,946	2,341	1,948	3,050	722,432	0.28
		신흥아시아	(1,333)	(2,028)	(13,160)	5,057	1,159,600	(0.12)
		EMEA	16	15	90	64	17,659	0.10
		남미	149	(468)	(506)	(8)	46,989	0.33
	신흥시장 Total		778	(141)	(11,627)	8,163	1,946,681	0.04
	주식 ETF Total		25,189	45,871	22,873	40,051	18,689,520	0.14
채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838	689	1,085	1,079	226,241	0.37
		북미	12,142	12,649	14,625	15,114	2,864,610	0.43
		서유럽	379	657	1,508	1,148	347,739	0.11
		아시아 태평양	90	152	176	261	26,416	0.35
	선진시장 Total		13,449	14,146	17,394	17,602	3,465,006	0.39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472	373	137	237	77,889	0.61
		신흥아시아	1,555	2,265	637	(781)	166,752	0.94
		EMEA	92	60	66	67	4,470	2.11
		남미	109	(28)	89	41	7,972	1.41
	신흥시장 Total		2,228	2,670	929	(436)	257,082	0.88
	채권 ETF Total		15,677	16,816	18,323	17,166	3,722,088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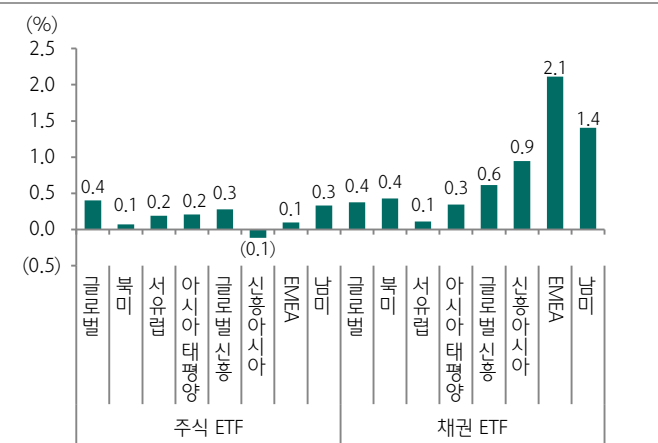
주1. 기준일: 26.8.26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자료: EPFR, 하나증권

2022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증권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증권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AI 성장 모멘텀 유효, 다만 9월 우선순위 변수는 금리, 유동성. IYW/XLK, QQQ, PAVE, GDX, SPHQ, DIVO 등 활용

- 현 국면을 기준으로 산업 관점에서 AI의 구조적 성장과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 다만 FOMC를 앞둔 금리 불확실성과 회사채 발행 증가, 추정세 납부에 따른 단기 유동성 흡수 가능성, 국채 수급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당분간 실적 가시성과 지속성,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작용.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되,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
- 금리 커브의 Flattening 흐름은 장기금리 부담 완화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SMH/SOXX/DRAM)의 반등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에 자리. QQQ/VOO/RSP와 같은 대표 지수형 ETF나 IYW/XLK/VGT 등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한편, 액티브 운용을 통해 업종 선택과 비중 조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CHAT/BAI도 활용 가능한 선택지
-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관세 및 리쇼어링 정책의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XLI(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자금조달의 수요 증가 국면에서 대형 IB 구성의 KBWB와 퀄리티 ETF 중목군의 QUAL/SPHQ/QCRO 등의 편입도 생각해 볼만한 시점. 달러화 신뢰와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GDX(금광기업), GLDM/IAUM(금 현물) 등 금 관련 ETF 역시 포트폴리오의 헷지 수단으로 활용. 국면의 특성상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것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언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2026년 3월 23일	75.24 85.71	13.92% -1.54%
주식형	KBWB (Invesco KBW Bank ETF)	미국 은행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2026년 7월 16일	98.44 96.28	-2.19% -2.63%
주식형	CHAT (Roundhill Generative AI & Technology ETF)	생성형 AI 및 기술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웨어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2026년 7월 16일	88.42 87.04	-1.56% -1.99%
주식형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사이버 보안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2026년 7월 16일	93.09 98.56	5.88% 5.44%
주식형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2025년 11월 24일	326.13 553.11	69.60% 52.88%
주식형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미국 인프라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2026년 8월 24일	56.39 55.31	-1.92% -0.45%
주식형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전력망 및 스마트 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2026년 7월 16일	182.63 179.19	-1.88% -2.32%
주식형	XBI (SPDR S&P Biotech ETF)	바이오 테크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시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2026년 7월 16일	156.22 162.38	3.94% 3.51%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주4) 상대수익률은 자산군별 벤치마크(BM) 대비 수익률을 의미(주식형: MSCI ACWI, 채권형: Bloomberg Global Agg TR, 리츠형: Bloomberg REIT, 대체형: S&P GSCI)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중동 긴장감 고조에 미 국채금리 상승하며 증시에 부담. FOMC 앞두고 고용, CPI 발표 주목

- 글로벌 증시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된 가운데 중동 긴장감 고조, 미 국채금리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인플레이션 경계감 높아지며 미 10년물 국채금리 4.75% 돌파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시장의 관심은 미국 고용보고서(9/4일)와 CPI(9/11일)로 이동. FOMC 앞두고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 좌우될 전망. FOMC 이후 마이크로 실적 발표 시작으로 실적 시즌 진입하는 만큼 반도체, AI 업종 중심 실적 모멘텀에 대한 관심 이어질 전망. 투자유망종목은 레노버(0992.HK), 자금광업(2899.HK) 신규 편입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115	3/10	306.36	339.20	10.72%	-2.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1,483	1/6	312.15	958.73	207.14%	195.35%
AMD	AMD.US	미국	정보기술	1,05	5/26	467.51	470.72	0.69%	-2.09%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502	1/6	616.10	797.47	29.44%	17.65%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미국	정보기술	324	3/10	108.53	231.00	112.84%	99.74%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	미국	정보기술	257	8/4	831.06	828.38	-0.32%	-1.93%
유나이티드 렌탈	URI.US	미국	산업재	88	7/28	1127.91	1038.00	-7.97%	-11.69%
블룸 에너지	BE.US	미국	산업재	83	1/6	103.87	206.30	98.61%	86.83%
레노버	0992.HK	중국	IT	65	9/1	30.58	신규	-	-
자금광업	2899.HK	중국	소재	38	9/1	36.42	신규	-	-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알리바바(종목 변경, 8/11~8/31, -13.83%), 북방화창(종목 변경, 8/11~9/1, -10.51%)

알파벳 (GOOGL.US)**AI 포트폴리오 확대로 주력 상품 & 서비스 수요 강세**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3,115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5E)	+29.0%
PER(2025E)	28.70
PBR(2025E)	8.50

- **Investment point**
2QFY26 Review 매출액 1,198억 달러(YoY +24.0%), EPS 9.11 달러 기록
구글 클라우드 매출 248억 달러(YoY +82%), 영업이익 88억 달러로 급증
FY2026 가이드언스 CapEx 중간값 2,000억 달러로 기존 1,85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
- **Risk**
AI 수익성 부진으로 AI CapEx 둔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483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76.60
PBR(2026E)	2.30

- **Investment point**
3QFY26 매출액 414.6억 달러(YoY +346%), Non-GAAP EPS 25.11 달러(YoY +1,215%) 기록
DRAM과 NAND 가격 전분기 대비 각각 60% 초반, 80% 중반 상승하며 서프라이즈 실적에 기여
4QFY26 가이드언스 매출액 490~510억 달러, GPM 86%, EPS 30~32달러 제시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AMD (AMD.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052
편입일	5월 26일
EPS증감율(2026E)	+96.9%
PER(2026E)	48.16
PBR(2026E)	9.88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115.4억 달러(YoY +50%), 조정 EPS 1.66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67억 달러(YoY +107%)로 급증하며 전체 매출의 58%까지 확대
3Q26 매출 가이드언스 130억 달러±3억 달러(YoY +41%), 조정 매출총이익률 56%를 제시
Helios-MI400 시리즈 램프업을 통해 AI 가속기 시장 내 점유율 확대 기대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에 GPU, CPU TAM 축소

캐터필러 (CAT.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502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27.4%
PER(2026E)	37.0
PBR(2026E)	20.1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205억 달러(YoY +24%), 조정 EPS 8.17달러로 큰 폭 성장. 조정 영업이익률도 21.9%→ 전년 17.6% 대비 개선되며 판매량 증가와 가격 효과가 동시에 실적을 견인
강한 신규 주문과 수주잔고 확대가 전 사업부로 확산되고 있어 미국 인프라·데이터센터·광산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 **Risk**
AI 투자 및 리쇼어링 수요 감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워크로드, 신원 및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 제공 보호 서비스 제공**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324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6E)	30.19
PER(2026E)	89.40
PBR(2026E)	19.38

- **Investment point**
1QFY27 매출 13.86억 달러(YoY +26%), 조정 EPS 1.10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성장세 지속
성장 동력 부문인 클라우드 보안, 차세대 아이덴티티, 차세대 SIEM 부문이 고성장 견인
모든 에이전트 통제하고 방대한 데이터 활용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 **Risk**
AI 기술 개발로 인한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 확대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용 대용량 HDD와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제조하는 저장장치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257
편입일	8월 4일
EPS증감율(2026E)	86.40
PER(2026E)	29.90
PBR(2026E)	31.80

- **Investment point**
4QFY26 매출 36.3억 달러(YoY +48.5%), 조정 EPS 5.71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
HAMR 기반 Mozaic 플랫폼의 고용량 제품 전환과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FY2027 외형 및 이익 성장 전망. 1QFY27 가이드는 매출 41억 달러, 조정 EPS 7.30달러 제시
- **Risk**
AI 인프라 투자 둔화와 클라우드 고객의 재고 조정, HDD 가격 하락 및 HAMR 제품 양산 지연

유나이티드 렌탈(URI.US)**건설·산업·인프라 현장에 일반 및 특수장비 렌탈과 작업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비 렌탈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88
편입일	7월 28일
EPS증감율(2026E)	+16.3%
PER(2026E)	23.5
PBR(2026E)	7.2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44.1억 달러, 조정 EPS 12.76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렌탈 매출은 전년 대비 12.7%, 특수장비 렌탈 매출은 24.8% 증가
대형 프로젝트와 고객 수주잔고 확대를 기반으로 2026년 매출 가이드를 175억~178억 달러, 조정 EBITDA를 79.8억~81.3억 달러로 상향
- **Risk**
비주거 건설경기 둔화 시 장비 가동률과 렌탈 단가 하락 가능

블룸 에너지 (BE.US)**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과 전해조 개발, 제조, 판매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83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77.6%
PER(2026E)	123.5
PBR(2026E)	55.0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10.65억 달러(YoY +166%), 조정 EPS 0.78달러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
온사이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블룸 에너지의 에너지 서버가 디지털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최근 데이터센터 관련 서비스 계약 평균 10~15년으로 기존의 6~7년 대비 증가
- **Risk**
타 전력 발전원 공급 병목 완화에 다른 SOFC 수요 둔화

레노버(0992.HK)**AI 서버 부문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국가	홍콩
업종	IT
시가총액(조원)	65
편입일	9월 1일
EPS증감율(2026E)	73.8
PER(2026E)	15.9
PBR(2026E)	5.1

- **Investment point**
전 사업 부문 실적 호조로 2Q26 실적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 특히 서버 부문 OPM 역대 최고치 기록
AI 서버 수주(540억USD)가 1Q26(210억USD) 대비 두 배 이상 확대, 중장기 이익 성장을 견인할 전망
PC 수익성도 공급망 우위, 제품 Mix 개선, 가격 인상 등으로 경쟁사 대비 양호, 이익 추정치 상향 중
- **Risk**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마진 악화, 서버/PC 출하량 부진

자금광업(2899.HK)**중국 대표 광산 기업, 원자재 업사이클 수혜**

국가	중국
업종	소재
시가총액(조원)	38
편입일	9월 1일
EPS증감율(2026E)	58.8
PER(2026E)	10.4
PBR(2026E)	3.3

- **Investment point**
구리·금·리튬에 걸친 다각화된 익스포처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원자재 업사이클의 수혜 예상
구리 원가 상승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 개선으로 상쇄 예정, 중장기 구리 생산 증가 가시성 유효
금 사업 성장 순조롭게 진행 중, Chifeng Gold 인수를 통해 중국 내 중소형 금광 인수 예정
- **Risk**
구리·금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변동성 확대 및 광산 생산 차질·인수 자산 통합 지연 가능성

2026년 8월 27일 | Global Equity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AI 보안 수요, 내러티브에서 숫자로

미국

TP(컨센서스) 215.85 USD
CP(8.26) 189.18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IT
주요 영업	사이버 보안
홈페이지	www.crowdstrike.com
시가총액(십억USD)	192.6
시가총액(조원)	265.6
52주최고/최저(USD)	227.5/85.68
주요주주 지분율(%)	
뱅크	10.15
블랙록	8.5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2 98.6 79.1
상대	(0.3) 87.5 60.6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3,954	4,812	5,937	7,217	
영업이익	838	1,046	1,468	1,905	
순이익	987	957	1,275	1,636	
EPS(USD)	0.98	0.93	1.23	1.56	
EPS(YOY, %)	27.2	(5.1)	32.3	23.9	
PBR(배)	192.5	202.9	153.3	123.7	
PBR(배)	30.1	25.3	32.7	25.3	
배당률(%)	0.0	0.0	0.0	0.0	

주: 조정 실적 기준
자료: 크라우드스트라이크, LSEG시장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충원 1223sjw@hanafn.com

2Q Beat & FY27년 가이드스 큰 폭으로 상향, 향후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

2QFY27 실적은 '미토스 모멘트' 이후 부각된 AI 보안 수요 상승이 내러티브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을 통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핵심 지표인 순신규 ARR이 3.3억 달러(+51% yoy)로 가이드스 상회폭이 16%가 넘었으며, 성장 측면에서는 23ppt 상회했다. 더욱 고무적인 수치는 FY27년 순신규 ARR 가이드스를 기존 27.7% 성장에서 34%로 6.3ppt 상향 조정이다. FY27년 첫 가이드스 제시 후 2개 분기 만에 11.5ppt를 올렸으며, 가이드스 산정 패턴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다. 주목하는 점은 3분기 계약 파이프라인이 사상 최대 규모다. AI 가동에 있어서 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상반기에 높아지기 시작했다면 하반기에는 파이프라인의 계약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FY27년 가이드스 대비 업사이드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AIDR(AI보안) ARR 1분기 대비 3배 증가, Flex 모델 기반 ARR +101%

1) 신제품인 AIDR(AI 감지 & 대응) ARR이 1분기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 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보안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DR가 기존 EDR에 포함된 기능이 아니라 별도 유료 모듈로서 실적 기여가 빠르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2) 주력 보안 분야 전체가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차세대 SIEM이 고성장을 지속, 합산 ARR이 21억 달러로 YoY 39% 증가했다. 3) 계약 내에서 여러 제품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추가할 수 있는 Flex 모델이 성장 가속을 이끌고 있다. Flex 기반 ARR이 22.9억 달러를 상회, 101% 성장했다. Flex 모델은 보안 시장 내에서 통합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단이다. 4) 엔드포인트 보안 사업이 성숙 시장이라는 인식과 달리 4개 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를 이어갔다.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절반은 여전히 레거시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AI 보안을 위해서 레거시에서 차세대 EDR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소수의 보안 통합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자 심리 더욱 좋아질 것

AI 에이전트 가동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성능과 자율성이 계속 높아진다면 보안 수요 역시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 1명당 최대 90개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시장 추정치를 감안하면 AIDR 시장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EDR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I랩의 자체 보안 솔루션 출시 가능성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그러나 보안은 기술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장기간 축적된 공격, 위협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비롯한 차별적인 보안 데이터 자산 보유가 CRWD와 같은 기존 보안 우량 사업자의 강력한 경쟁력 요인으로 판단된다. 주가는 12M FWD P/CF 84배로 과거 추이(2년 평균 68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졌으나 소수의 사이버보안 대표 종목들에 대한 리레이팅 구간으로 판단된다. 1) CY26년보다 CY27년에 더욱 본격화될 AI 에이전트 보안 수요, 2) AI 보안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부문에 대한 기업의 지출 비중 증가, 3) 소수 통합 사업자에 대한 프리미엄 확대를 고려하면 사이버보안 Top pick 종목으로서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된다.

미국 기업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8.2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엔비디아를 안 살 이유가 없다

AI 생태계 확장이 만드는 성장 가시성: 시장이 우려한 현금흐름, 순환금융, ASIC에 답하다

-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달리 FY2028 매출 성장을 +70% 전망.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급 제약을 반영한 수치로, 엔비디아의 중장기 실적 가시성은 오히려 높아짐
- FY2Q27 현금흐름과 매출총이익을 약화하는 수요 둔화보다 운전자본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본업 경쟁력 훼손으로 보긴 어려움
- 순환금융과 자체 ASIC 확대 우려에도 엔비디아는 금융지원과 범용 플랫폼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매출과 반복매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도 싸다. 엔비디아의 EV/EBIT은 15.1배로 5년 평균(30.6배), 2년 평균(23.1배)보다 낮고, EV/Sales는 10배로 5년 평균(16.5배), 2년 평균(15.1배)보다 저평가 되어 있다. 12개월 선행 PER은 23.2배(5년 평균 41.6배, 2년 평균 34.3배)다. 실적과 향후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FY 2Q27 실적 발표에서 시장참여자들이 불안해하는 실적 가시성, 순환 금융, ASIC 반도체와의 경쟁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답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으나, 포트폴리오 안에 실적이 견조한 엔비디아 비중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FY 2028 매출 성장을 YoY +70%를 처음으로 미리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확보 가능한 공급능력에 기반한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고객들의 수요 전망만 놓고 보면 다음해 사업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 공급 제약이 해결될 경우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과거 1년 앞선 연간 전망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던 엔비디아가 장기 가이드를 공개한 것은 과거보다 높은 공급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 실적과 가이드를 공개 후 엔비디아의 시간외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FY 2Q27 잉여현금흐름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 다음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선도 시장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현금흐름과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선 약화를 수요 둔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빠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본 부담과 메모리 원가가 동시에 상승한 영향이 더 크다. FY 2Q27 잉여현금흐름은 213억 달러로 전분기 486억 달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영업현금흐름도 503억 달러에서 241억 달러로 줄었다.
- 현금흐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본 부담이다. 매출채권 증가로 223억 달러, 재고 증가로 58억 달러, 선급비용 및 기타자산 증가로 55억 달러의 현금이 유출됐다. 분기 말 매출채권은 631억 달러, 재고는 316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해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 고객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회수보다 지출이 선행된 영향이다. 벡라 루빈 출시를 앞두고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일부 투자적 고객의 대규모 구매에 결제기간을 연장하면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45일에서 60일까지 상승했다. GPU 판매에 따른 매출은 먼저 인식됐으나, 실제 현금 수취 시점은 뒤로 밀린 것이다. 이번 분기 현금흐름 약화는 이익창출력 저하가 아닌 높은 성장률에 대응하기 위한 운전자본 투입 확대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한다.

-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진 이유도 엔비디아의 제품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견조한 AI 수요 덕분에 엔비디아의 플랫폼 판매가 확대되면서 부품이 부족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 가격이 극단적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출총이익률은 FY 3Q27 74%로 낮아지고 4분기에는 71~72%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2028년부터 72~73%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이라고 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가 부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판가를 올렸는데, 내년 1분기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메모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내용이다.
- 시장참여자들이 걱정하는 순환금융은 엔비디아에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엔비디아의 목표는 AI 생태계 확장이다. 젠슨 황이 매년 'Compute is Revenue'를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는 엔비디아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 토큰 단가를 떨어뜨리는 중이라고 했다. 빠른 신제품 주기를 통해 고객들이 내려올 수 없는 런닝머신을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다. 네오클라우드나 AI 기업들은 고객 수요가 강하지만 빠른 성장에 비해 자체 자금조달 능력과 신용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금융조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엔비디아는 직접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최소매출 보장, 선별적 신용보강, 외부자금 조달 등을 통해 AI 인프라고객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에게 일부 용량에 대해 최소한의 매출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을 맺는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함이다. 프린티어 AI 기업들은 빠른 성장에 비해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들 가운데 일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약 2GW 규모 컴퓨팅에 선별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할 계획이다.
-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는 도구다. 엔비디아는 신용을 지원한 고객의 클라우드 매출 일부를 수취하는 계약을 맺거나, 일부 AI 기업들에 지분투자를 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강한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AI 팩토리 매출, CUDA 생태계 확장뿐만 아니라 오픈 AI나 앤트로픽 등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투자한 지분가치도 커진다. 일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로부터 클라우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계약도 맺었다. 하드웨어 판매 이후에도 사용량과 연계된 반복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AI 기업의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범용성 덕분에 다른 고객이나 워크로드로 재배치할 수 있다.
- 시장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경쟁사 및 AI 기업들의 자체 ASIC 반도체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범용 GPU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맞춤형 반도체의 경우 특정 클라우드와 서비스, 추론 등에 최적화 돼 있다.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오픈 AI나 앤트로픽 등 AI 기업이 전 세계로 확장될수록 자체 데이터센터만으론 컴퓨팅 수요를 감내하기 어려워진다. 외부 클라우드, 네오클라우드, 소버린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자체 ASIC은 특정 서비스와 인프라에는 효율적이거나, 다양한 클라우드와 지역 인프라에서 활용하기에는 범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엔비디아가 더 유리할 것이다.

2026년 8월 28일 | Global Equity

Marvell Technology (MRVL.US)

10월 도파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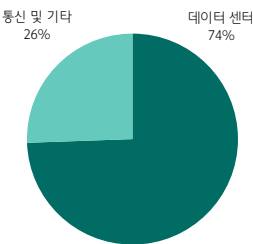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82.41 USD
CP(8.27) 241.45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marvell.com
시가총액(십억USD)	211.2
시가총액(조원)	290.9
52주최고/최저(USD)	329.9/61.4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11.48
블랙록	9.04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7.6 195.6 212.6
상대	23.3 183.2 193.7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5,767	8,195	11,556	17,030
영업이익	1,665	2,891	4,221	6,570
순이익	1,377	2,466	3,686	5,757
EPS(USD)	1.57	2.84	4.06	6.36
EPS(YOY, %)	4.0	80.9	42.9	56.7
ROE(%)	10.1	17.0	19.9	26.0
PER(배)	71.9	27.8	58.6	37.5
PBR(배)	7.3	4.7	11.7	9.8
DPS(USD)	0.24	0.24	0.24	0.28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단기 주가 약세 가능성. 10월 투자자의 날 행사가 중요

주가의 단기 약세 나타날 수 있지만 마벨 테크놀로지(이하 마벨)에 대한 중장기적인 긍정적 관점은 유지한다. 실적 발표 후 마벨의 시간외 주가는 급락했다. 마벨은 실적 발표하기 전 구글과 TPU 생태계 관련 협력을 확대했다. 마벨의 주가는 TPU 계약 공시 이후 1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SOXX ETF가 1.1% 하락한 점 감안하면 구글과의 계약 덕분에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됐을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단기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벨의 12개월 선행 PER은 44.5배로 5년 평균(30.1배), 2년 평균(31.4배)보다 높다. 마벨은 중장기 목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실적으로 증명해온 기업이다. 10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명확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2Q27 실적

마벨의 FY 2Q27 실적(Non-GAAP 기준)은 매출액 27억 달러(YoY +36.5%, QoQ +13.3%), 매출총이익 16억 달러(YoY +35.5%, QoQ +13.4%), 영업이익 10억 달러(YoY +43.6%, QoQ +20.1%), EPS 0.94 달러(YoY +39.7%, QoQ +16.9%) 등이다.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0.7%, 1.2%, 1%, 1.1% 상회했다. 양호한 데이터센터 제품군의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GAAP 기준 영업비용은 10억 달러(YoY +38.2%, QoQ +8.1%)다. 판매관리비 3억 달러(YoY +26.5%, QoQ -5.3%), 연구개발비 7억 달러(YoY +42.8%, QoQ +13.6%) 등이다.

이번 분기 영업현금흐름은 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2% 늘었지만, 1분기보단 5.2% 감소했다. 시장 컨센서스를 18.9% 하회했다. 매출과 이익이 성장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주요 원인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다. FY 2027 전체 공급망 용량 선제 투자 계획은 약 10억 달러다. 분기말 재고는 13.6억 달러로 전분기 14억 달러 대비 소폭 줄었다. 재고증가에 따른 현금흐름 훼손이 아니다. 수요가 견조해 투자를 늘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CFO는 마벨의 성장 기회가 크다고 강조하면서도 단순 매출 확장보다 성장의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목표로 영업이익을 확대, 현금흐름 증대, 주주환원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번 분기에도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비 중심의 영업비용이 전분기 대비 늘었지만,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더 빨랐다. 이번 분기에도 영업현금흐름은 줄었으나,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했다. 경영진의 재무구조에 대한 자신감으로 판단한다.

산업 Issue

2026년 8월 31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전력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1기와의 차이점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망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8월 26일,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외국산 전력장비를 규제하는 행정명령(14420)에 서명했다. 지난 7월 28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산 전력 인버터를 커버리스트에 새로 추가하며 신규 진입을 차단한 데 이어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규제 대상을 외국산 대량 전력시스템(Bulk power system)으로 확대했으며 FCC 규제와 달리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외국산 대량전력시스템에는 외국이 원격으로 해당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백도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 있으며 미국이 외국산 장비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공급망 취약성을 만든다는 이유다.

변압기, 캐패시터, BESS, UPS 등 규제 대상이 광범위

이번 행정명령이 정의하는 대량전력시스템은 지역 배전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상호 연결된 송전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제어시스템, 69kV 이상의 송전선을 포함한다. 대량전력시스템 전기 장비는 대량전력시스템의 변전소, 제어실, 발전소에 사용되는 리액터, 캐패시터, 변전소용 변압기, 유틸리티급 인버터, BESS, UPS, 대형/소형/비상용 발전기, 분산 제어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력망 장비들의 거래에 있어 에너지부 장관이 (i) 장비를 만든 회사가 위험국가로 지정된 외국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ii) 해킹 위험이 있거나 국가안보상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지된다. 위험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부 장관이 외교 정책에 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외국 정부가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와 유사한 행정명령, 효과는 훨씬 뚜렷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1기였던 2020년 5월 1일에도 같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13920)을 공개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대상 장비를 인버터,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했으며 기존 설치 장비에 대한 권한도 권고안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교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게다가 2020년 행정명령은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적인 효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120일 이내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될 예정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나 아직 트럼프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1기보다 뚜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국방, 통신, 전력인프라까지 공급망 재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026년 8월 29일 | Global Equity

CXMT(688825.CH)

1H26 Re: 가이던스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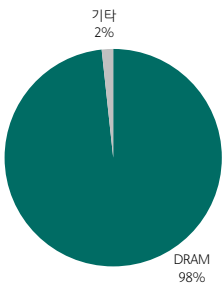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85.39 CNY
CP(8.28) 58.60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상하이 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https://www.cxmt.com
시가총액(십억CNY)	3,978.0
시가총액(조원)	812.4
52주최고/최저(CNY)	61.8/38.11
주요주주 지분율(%)	
HF QINHUI POWER GATHER BNT LP	19.21
Hefei Changxin Integrated Circuit	10.3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0.7 - -
상대	18.1 - -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4,178	61,799	317,322	542,823
영업이익	(6,869)	10,743	233,368	412,520
순이익	(7,145)	1,875	159,928	283,220
EPS(CNY)		0.0	2.4	4.3
EPS(YoY, %)			8,053.3	75.3
ROE(%)	(18.6)	3.8	71.9	57.6
PER(배)			24.0	13.7
PBR(배)			13.9	7.2
배당률(%)			0.2	0.4

자료: Bloomberg, 아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DRAM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 큰 폭 개선

CXMT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1,503억위안(YoY +873%)로 가이던스(1,100~1,200억위안) 상단을 25% 상회했고,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776억위안(YoY 흑전)으로 가이던스(500~570억위안) 상단을 36% 상회하며 전년 동기 23억위안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 전환했다. 상반기 글로벌 DRAM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DDR5와 LPDDR 중심의 DRAM 제품 가격 상승과 판매량 급증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상반기 DDR/LPDDR의 매출 비중은 46%/52%로 DRAM 제품이 98%를 차지했으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40%/+637% 성장했다. 상반기 매출총이익률은 84.8%로 전년 동기 12.7%에서 72.1%p 상승하며 글로벌 메모리 3사(SK/삼성/마이크론) 평균인 76.1%를 크게 상회했다.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배경에는 DRAM 가격 급등 외에도 CXMT의 생산능력 확대와 수율 개선, 중국 내 메모리 제품 국산화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LPDDR6 양산 단계 진입 예정

CXMT는 이번 실적에서 자체 개발한 LPDDR6 제품이 현재 샘플 공급과 검증을 완료하고 양산 단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XMT의 LPDDR6 제품은 최대 전송속도 12.8Gbps, 단일 칩 기준 최대 용량은 16GB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공개한 LPDDR6 제품의 최대 속도(14.4/10.7Gbps)와 최대 용량(16/16GB)에 근접한 수준이다. 경영진은 차세대 저전력 설계 구조를 적용해 데이터 전송 효율과 전력소모 간 균형을 크게 개선했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고급 스마트폰, 서버, 스마트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CXMT 증설 영향은 2028년 전후가 분기점

CXMT는 2026년 2분기 4세대 B1 공정, 약 16nm급으로의 전환을 완료했다. 수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DDR5 제품은 5,600MHz 지원이 가능하고, 향후 6,400MHz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다중 패터닝 의존으로 공정 단계가 더 많아 웨이퍼당 bit 생산량, 원가 등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두 업체 대비 열위에 있다. HBM은 2027년 12단 HBM3E 양산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7년 약 300~400만개 HBM3E 스택 생산이 가능할 경우 중국 내 AI GPU 핵심 병목 완화에 충분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산업 관점에서 CXMT의 기술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능력 확장 속도와 이로 인한 공급 과잉, 가격 하단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일 것이다. CXMT의 생산능력은 2028년 월 50만장에서 2030년 이후 월 80만장 수준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DRAM 공급 부족 완화가 예상되는 2028년 전후부터는 가격 하락 사이클에서도 CXMT가 공격적 증설 기초를 이어갈 경우 범용 DRAM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CXMT의 증설 속도가 글로벌 DRAM 가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2026년 9월 1일 | Global Equity

양광전력(300274.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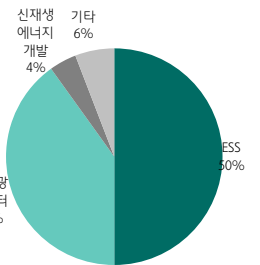
2Q26 Re: 전 사업부 매출 감소

중국

TP(컨센서스) 149.92 CNY
CP(8.31) 91.50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심천 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sungrowpower.com
시가총액(십억CNY)	265.0
시가총액(조원)	60.3
52주최고/최저(CNY)	209.88/67.03
주요주주 지분율(%)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8.31
Cao Ren Xian	7.6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1.5) (39.2) (7.8)
상대	(14.3) (46.3) (24.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77,857	89,184	92,541	111,557	
영업이익	13,435	15,663	16,113	20,069	
순이익	11,036	13,461	13,483	16,465	
EPS(CNY)	5.3	6.6	6.7	8.1	
EPS(YoY, %)	17.1	23.1	1.7	21.2	
ROE(%)	34.2	32.2	24.5	23.9	
PER(배)	13.9	26.3	13.7	11.3	
PBR(배)	4.1	7.6	3.3	2.6	
배당률(%)	1.5	1.0	1.6	1.9	

자료: Bloomberg, 아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2Q26 매출/순이익 컨센서스 하회, 중국 태양광 설치 급감 영향

2Q26 매출은 154억위안(YoY -37%)으로 컨센서스를 37% 하회했고, 순이익은 30억위안(YoY -24%)으로 컨센서스를 1% 하회했다. 매출 부진은 중국 태양광 설치 수요 위축에 따른 중국 사업 매출 감소(1H26 YoY -55%)가 주요했다. 1H26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출은 YoY -85% 급감했다. 중국 전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YoY -66% 감소한 가운데, 양광전력이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축소한 영향이다. 태양광 인버터 매출은 124억 위안으로 YoY -19% 감소했으나, GPM은 고마진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42.7%로 YoY +7.0%p 개선됐다. 1H26 ESS 매출(비중 50%)은 155억위안으로 YoY -13%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형 프로젝트의 높은 기저와 매출 인식 시점 차이로 중동 지역 ESS 매출이 YoY 52억위안 감소했기 때문이다. ESS GPM(32.4%)은 탄산리튬 가격 상승으로 YoY -7.5%p 하락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사업 규모 축소

미국의 인버터 규제 영향은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 제한적일 전망이다. FCC는 7월 28일 해외에서 생산되고 통신 기능을 갖춘 전력 인버터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으나, 8월 20일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며 비(非)유틸리티용 인버터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양광전력의 AIDC ESS 시장 진출 가능성은 유지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기존 태양광 인버터와 전력망용 ESS PCS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존 인증 제품의 판매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태양광·ESS 시장의 제품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기존 인증 제품은 향후 수년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경영진 역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사업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성장 동력은 AIDC ESS 수주와 SST

AIDC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AIDC 연계 ESS 수주잔고는 약 2GWh이며, 추가로 수주를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10GWh 이상 규모다. 또한, 7월 EnerNeo 시리즈 SST(고체변압기)를 정식 출시했다. 경영진은 4Q26부터 SST 신규 수주가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2027년 소량 양산·납품을 거쳐 2028년부터 대규모 납품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규제가 전사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당분간 미국의 대중국 전력장비 규제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DC 연계 ESS 수주 확대와 SST 상용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글로벌 매크로· 투자전략팀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Quant	7518	gang
	김근아	선임연구위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이철현	선임연구위원	Global Quant	7723	lch2678
	김성온	선임연구위원	중국분석	7520	seongeunk
	손일수	연구위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3629	ilsooson

채널전략팀

채널전략팀	김두언	팀장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강윤형	선임연구위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박준우	선임연구위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최욱	연구위원	국내외 주식 시황 RA	7477	wookchoi

해외주식분석실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백승혜	수석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7521	sh_baek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송예지	선임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위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장치영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ETF	3669	chiyoung.jang
	안기량	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an
	송종원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eunlee
	신민건	연구위원	글로벌 ETF RA	3269	mingun.shin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